



국립극단
SINCE 1950

가을마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2015.
11.4 - 11.22

작
기군상

번역
오수경

각색, 연출
고선웅

교육자료

(재)국립극단에서 관객들의 효과적인 연극 감상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자료는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공연 관람 후 그룹 토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됨.



시놉시스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아명을 지어 조씨고아라 하겠소. 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반드시, 반드시 부모의 원수를 갚으라고 알려주소.”

장군 도안고는 조정에서 신뢰받는 문관 조순에게 질투를 느껴 영공으로 하여금 조순 가문을 멸족하는 명을 내리도록 계책을 꾸민다. 조순의 며느리이자 영공의 여동생인 공주마저 화를 면치 못하게 되자 공주는 갓 태어난 아들 조씨고아를 시골의원 정영에게 단단히 부탁하고는 자결한다. 정영은 조씨가문의 문객으로 공주, 조삭 부부와 비슷한 시기에 늦둥이 아들을 얻었다.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 정영은 공주의 절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결국 자기 자식과 조씨고아를 뒤바꿔 고아를 살려낼 방책을 세운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으로 조씨고아를 살려낸 정영은 아이의 정체를 숨긴 채 정발이라 이름 짓고 자신의 아들로 키운다. 이를 알아채지 못한 도안고는 정영을 자신의 편으로 굳게 믿고 함께 정발을 양아들로 삼아 문무를 겸비한 사내아들로 키워낸다. 정발이 장성하자 정영은 20년 전 조씨 집안에 불어닥친 비극에 대해 소상히 들려주며 도안고에 대한 복수를 부탁한다. 20년 만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정발은 몰살당한 가족들과 20년간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정영, 그리고 두 얼굴의 양아버지 도안고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정영의 말에 따라 조씨 가문을 위한 복수를 결심한다.

주요 등장인물

정영

조씨 집안의 설욕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필부

조씨고아가 태어나던 해, 정영은 나이 마흔 다섯에 난생처음으로 자식을 얻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도안고의 간계로 몰락한 조씨일가의 마지막 희망 조씨고아의 생사를 책임지게 된다. 조씨집안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는 선량한 시

골 의원 정영은 조씨고아를 살리기 위해 어렵사리 얻은 자신의 귀한 아들을 희생시킨다. 조씨 가문의 은혜를 받은 바 있는 한궐 장군이나 태평장의 공손저구가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목격하며 정영 역시 가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헌신적으로 조씨고아를 책임지게 된다. 타인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구한 운명을 맞이한 정영의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운명의 야속함, 약속의 소중함, 복수의 허망함 등을 생각하게 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하성광 배우가 정영 역을 맡아 의도치 않게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아들과 부인까지 희생시키고 대신 복수의 씨앗을 20년간 키우는 필부를 열연한다.

도안고

조씨 집안을 멸족시키는 질투와 분노의 화신

권력욕에 눈 먼 차가운 심장의 소유자로, 조씨 가문 300명이 멸족되는 재앙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영공이 하사한 개 신오를 굶겼다가 조순의 복색을 한 허수아비 안에 양의 심장을 넣어 두어 정신없이 물어뜯도록 훈련시킬 만큼 비겁하고 야비하다. 결국, 영공 앞에서 신오가 조순을 불충한 자로 지적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여 조씨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한다. 만족을 모르는 도안고는 조순의 며느리가 낳은 갓난아이의 행방이 묘연하자,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된 모든 아기들을 잡아들이는 잔혹함을 드러낸다. 하지만, 정영이 여러 의인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려낸 조씨고아를 수양아들로 삼아 20년간 정성껏 기를 정도로 아둔하기도 하다. <리어왕>에서 폭풍우 치는 황야에서 절규하는 리어 역으로 명연기를 선보인 배우 장두이는 이번 공연에서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조씨 가문을 몰살시키는 악역 '도안고'를 맡아 남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도 허비하게 되는 어리석은 인간의 허망한 최후를 보여준다.

조순

권력욕에 눈 먼 도안고가 몰고 온 잔혹한 재앙의 희생양

책을 가까이하고, 이웃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어진 성품을 가진 전형적인 문관이다. 능력과 인품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함이 도안고로 하여금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에게 경쟁심을 느끼며 권력을 얻기 위해 조바심을 내는 도안고의 마음까지 얻지 못한 것이 조순의 흠이라면 흠일 것이다. 그러나 "적선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며 평생 베풀어온 은덕이 있었기에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의인들이 그와 조씨 가문을 살리기 위해 희생을 마다 않으며 결국 조씨고아는 살아남아 복수를 하는데 성공한다.

정발

복수를 위해 살아남은 조씨 집안의 마지막 희망

똑똑하고 활쏘기에도 능한 스무 살 청년. 도안고와 정영 두 사람을 아버지로 알고 자랐지만, 사실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조씨집안의 마지막 희망이다. 하지만, 오로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정영의 마음을 헤아리기엔 너무 해맑기만 하다. 두루마리에 그려진 그림을 보며 조씨집안에 들이닥친 비극을 소상히 들려주는 정영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이제 복수에 돌입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일을 복수로 갚아야만 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수많은 사람들의 넋이 이제 조씨고아의 어깨에 달려있다.

키워드

복수

이번 공연 제목 뒤에는 '복수의 씨앗'이라는 부제가 붙는다. 복수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의 목숨, 가족, 인생은 과연 복수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결국은 허망한 뒤끝을 남기게 되는 게 복수이지만, 많은 이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 조씨고아의 복수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복수의 발단은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인되는 폭력성이 복수와 연결된다. 조씨 집안 전체를 멸족시킨 도안고는 '조정에서 유독 조순이 드러나기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끓어올랐지.'라고 고백한다. 도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속에서도 언제나 수면 위로 나오지 않을 뿐 도사리고 있는 폭력적인 감정이 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복수를 당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조씨가문을 멸족한 데 대한 복수를 도안고 가문의 멸족으로 갚게 되는 순간에 이르러서 정영은 왕에게 묻는다. "꼭 구족을 멸해야 합니까?" 그 카타르시스 뒤에 찾아오는 허망함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의리

작품의 막이 오르고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의리를 위해 자결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이어진다. 조순 대감과 한 집안의 마지막 핏줄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의리가 무엇이길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작품에서 의리는 '보은'과 연결이 된다. 도안고의 책략에 의해 조순이 신오라는 개의 공격을 받고 도주하게 되었을 때, 바퀴 빠진 마차를 이끌었던 영첩은 뽕나무 밑에서 조순 대감으로부터 '술과 고기'를 하사받아 어머니를 봉양했던 장사이다. 대궐 앞을 지키다가 조씨고아를 숨겨 나가려는 정영을 도와주는 한궐 장군은 한 때 모함을 당해 효수될 위기에 처했다가 조순 대감의 변호로 풀려난 데 대한 보은으로써 자결을 감행한다. 온갖 고초를 겪으며 조씨고아를 살려내는 정영을 포함하여, 조씨고아를 살려내는데 기여하는 의인들은 거의가 조씨 가문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

약속

"그리 말하지 말게. 자식을 버리는 내 심정은 오죽하겠나."

"그깟 의리가 뭐라고, 그깟 약속이 뭐라고, 그깟 뺄는 말이 뭐라고, 남의 자식 살리고 내 자식을 죽여!"

아들 정발을 내줄 수 없다며 울부짖는 아내 앞에서 정영은 공주마마와 한궐 장군, 공손저구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며 '평생을 후회하게 될 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자기 아들과 조씨고아를 바꿀 수밖에 없노라고 말한다. 이렇게 한 마디 약속을 위해 처자식의 희생을 감수하는 정영의 모습은 현대인으로서 사실 이해하기 힘들다. 연출가 고선웅은 이 작품을 통해 SNS와 문자의 탓으로 쉽게 말을 내뱉는 현대인들에게 "말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말의 중요성이나 중압감이 많이 사라진, 식언이 많아진 시대이다. 정치권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옛날에는 말 한 마디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일이 있을 만큼 고결한 가치로 여겼다"는 메시지를 이번 공연에 담았다.

욕심(권력욕)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더 많아집디다"

조씨 가문과 삼백 명이 죽음을 당하게 한 원인 제공자는 도안고로, 조순 대감을 향한 그의 질투와 권력을 향한 욕심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다. 결국 왕위까지 넘보다가 조씨고아의 복수를 맞이하게 된 도안고는 자신의 집안 역시 구족이 멀하게 되는 참사를 당한다. 이렇게 한 사람의 야심과 욕망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희생된 사례는 역사 속에 수없이 많지만, 특히 폭정을 일삼은 잔인한 폭군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만 해도 수나라의 양광, 진나라의 진시황, 은나라 주왕이 있었고 로마의 칼리굴라, 몽고의 징기스칸, 영국의 헨리8세, 러시아의 이반 대제,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지나친 권력욕으로 인해 국가적인 희생과 고통이 뒤따른 예들을 살펴볼 수 있다.

작품 정보

원대잡극

서양연극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다면, 중국에는 4대 비극 작품으로 꼽히는 희곡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조씨고아>다. 수많은 희곡이 창작되고 극단 활동이 활발했던 송대를 지나 원대에 이르면서 몽고족의 침입으로 벼슬에 나갈 수 없게 된 소외된 지식인들이 희곡 창작으로 생계를 도모하면서 좋은 희곡들이 쏟아져 나왔다. 원나라의 작가 기군상이 쓴 <조씨고아>는 사마천의 '사기'에 수록된 역사적 사건을 문학적으로 재탄생시킨 이야기다. 주옥같은 작품을 남긴 원대 작가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13세기 당시에는 지식과 사상으로 무장한 의식 있는 작가들이 문학적 깊이뿐만 아니라 당시 일반인들의 생활상과 사회에 만연하던 모순적인 모습들도 반영했다. 이렇게 쓰인 작품들은 잡극으로 분류되는데, 대개 비교적 짧은 4단락으로 구성된 음악극 형식으로 곡(曲 노래), 백(白대사), 과(科 행동)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700여개의 작품이 발표되었으며 현재는 약 170개의 대본이 남아있다. <조씨고아>는 중국고전 작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서구에 소개된 작품으로 18세기에 프랑스어로 번역되었다.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사상가 볼테르가 각색한 버전 <중국고아>는 유럽 곳곳에서 공연되며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연극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희곡이 아닌 소설(조무전)로 유입되었다.

각색본의 특징

- 기군상의 <조씨고아>는 등장인물의 수가 적고 많은 부분이 해설을 담은 노래나 대사로 표현되어 있다. 이번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에서 고선웅 연출은 직접 각색을 하면서 원작의 긴 호흡을 현대적인 짧은 호흡으로 줄이면서 노래와 대사로 되풀이 되던 많은 부분을 축약했다.
- 원작에 언급은 되지만 등장하지 않던 인물들인 장수 영첩, 검객 서예, 정영의 아내 등을 실제로 무대에 등장시켜 살아있는 인물로서 관객과 만나게

함으로써 극의 생동감을 부여했다. 원작에서 정영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다 고만 언급이 되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아내가 정영의 행동을 말리며 어머니가 겪는 아픔을 보여줌으로써, 내용에 관련된 개연성을 더욱 확장하며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 13세기 원작에서 차용한 부분 중에는 의성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을 들 수 있다. 신오라는 개를 표현하는 데 있어 '우걱우걱', '남남'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했고,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도안고의 나이 둘 역시 '콜록콜록'이라는 의성어 하나로 표현했다.
- 이 밖에 중세의 원작을 현대적으로 각색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기본적인 연극성의 강조이다. 전기장치나 조명이 없던 원대의 연극은 무대장치적인 면에서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원대 연극의 특징을 살리고자 고선웅 연출은 빈 무대를 배경으로 연극적인 시간과 공간을 강조하는, 다시 말해 '연극은 연극임을 들키고 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 이번 공연에는 목자가 등장한다. 목자는 고선웅 연출이 원작을 각색하면서 새롭게 집어넣은 캐릭터다. '목자墨子'는 동양의 전통연극에서 검은 부채를 들고 등장하곤 하는데, 무대를 최소화 하는 대신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감정을 보다 극대화하여 표현할 방법을 찾다가 설정하게 되었다. 실제 관객들 눈에 보이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역할이다. 공연 말미에서는 작품이 관객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세상은 꼭두각시의 무대
 북소리 피리소리에 맞추어 놀다 보니
 어느 새 한바탕의 짧은 꿈
 갑자기 고개를 돌려 보면 어느 새 늙었네
 이 이야기를 거울삼아
 알아서 잘들 분별하시기를
 이런 우환을 만들지도
 당하지도 마시고 부디 평화롭기만을
 금방이구나 인생은, 그저 좋게만 사시다 가시기를*

작가/연출가 소개

작가 기군상 記君祥 (연도미상 ~ 연도미상)

중국 원나라 시기의 잡극 작가로, 태어난 때와 사망한 때를 알 수 없다. 일부 연구자들은 원나라 말기 종사성鐘嗣成이 지은 '잡극'과 '산곡散曲'의 작자와 작품의 목록을 기록한 책인 <녹귀부錄鬼簿>를 근거로 13세기 후반 원元 세조世祖 연간(1264 ~ 1294) 때 사람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잡극 <여피기驢皮記>, <판차선販茶船>, <송음몽松陰夢>, <조씨고아趙氏孤兒>, <한퇴지韓退之>, <조백명착감장曹伯明錯勘賊> 6종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조씨고아> 완전본과 <송음몽> 1절折만이 전해진다.

각색·연출 고선웅 (1968 ~)

연극성을 극대화하는 '마술적 사실주의'를 지향하는 연출가 고선웅은 극공작소 마방진을 창단한 후 지난 10년간 <칼로막베스>, <홍도>, <강철왕>, <락희맨쇼> 등을 쓰고 연출하여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2011년 연극 <푸른 날에>로 1980년 5·18의 무거운 역사를 명랑하게 풀어내 그 해 온갓 연극상을 휩쓸었다.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아리랑>, 창극 <변강쇠 점찍고 옹녀> 등 장르를 넘나드는 각색과 연출 작업을 통해 연극의 원형을 살린 서사극으로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한국 연극계가 가장 주목하는 연출가로 자리매김했다. 빠른 리듬감을 살린 언어의 힘과 연극적인 에너지를 추구하는 그는 셰익스피어의 희비극처럼 비극 속에 웃음을, 희극 속에 비장미를 담아내는 남다른 연극성으로 현대 비극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

<조씨고아>는 고선웅 연출이 서양고전에서 동양고전으로 눈을 돌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작품으로, 우리나라 고전으로 보자면 <심청전>처럼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고선웅 연출은 이번 작품을 장두이, 하성광 등 중견배우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힘을 느낄 수 있는 '선수들의 학예회'라고 자신 있게 소개한다.

주요작품

연극

2014 <홍도> 각색/연출

2012 <리어외전> 각색/연출, <뜨거운 바다> 연출

2011 <푸르른 날에> 각색/연출, <늪어가는 기술> 작/연출
 2010 <칼로막베스> 각색/연출, <대학살의 신> 윤색
 2009 <들소의 달> 작/연출
 2008 <강철왕> 작/연출
 2007 <마리화나> 작/연출
 2004 <이발사 박봉구> 작
 1999 <락희맨쇼> 작/연출 외 다수
 창극
 2014 <변강쇠 점 찍고 옹녀> 각색/연출
 뮤지컬
 2015 <아리랑> 극본/연출
 2014 <원스> 윤색/가사
 2009 <남한산성> 극본
 2000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극본/가사/연출 외 다수

수상내역

연극

2014 <홍도> 한국연극 베스트7,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2014 <변강쇠 점 찍고 옹녀> 차범석 희곡상
 2014 <외톨이들> 제5회 중국 산둥국제연극제 작품상/연출상
 2013 영희연극상
 2012 <늪어가는 기술> 대한민국연극대상 희곡상
 2011 <푸르른 날에> 한국평론가협회 베스트3, 한국연극 베스트7,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연출상
 2010 <칼로막베스> 동아연극상 작품상/연출상
 2010 <들소의 달> 서울연극제 우수작품상
 2008 한국공연예술프로듀서협회 올해의 예술인상
 2006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01 <천적공존기> 옥랑희곡상
 1999 <우울한 풍경속의 여자>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 외 다수